

KIA 광도규 “‘쓸 만한 선수’ 되겠다”

**KIA 타이거즈
아마미 캠프를 가다**
일본=김여울 기자 광주 **YouTube** **일본**

야구는 심장을 흔들어 놓는다.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다. 봄이 오면 야구가 시작되고, 여름에 활짝 피어나서 저녁 나절을 충만하게 채운다. 그리고 찬 바람 속에 비가 내릴 때 낙엽이 떨어져 내리듯 쓸쓸하게 떠나간다. 우리는 야구를 보며 흐르는 세월을 잠시 잊기도 하고, 찬란한 햇살의 기억을 잠시 붙잡아둔다. 그러나 저무는 하루가 가장 간절해 질 때쯤 노을이 지듯 야구도 그렇게 멈춘다.

KIA 타이거즈의 좌완 광도규는 고통스러웠던 재활과정을 이야기하면서 MLB 커미셔너 A. 바를렛 지아마티가 남긴 에세이를 읊었다. “중학교 때 동경했던 선수들 영상까지 찾아보고 영상을 많이 봤다. 보스턴 레드삭스 다큐멘터리도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말이다. 목표가 보이지 않는 지루한 과정 속에서 나를 일깨워주는 말이었다. 동기 부여가 됐다”며 웃은 광도규는 일본 아마미오시마 캠프에서 긴 터널을 지나 빛을 향해 걸어가고 있다. KIA는 아마미 야구장에서 2026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5월 팔꿈치 수술을 했던 광도규도

재활의 긴 터널 지나 캠프 합류 100% 피칭 가능한 건 아니지만 불펜에서 공 던지며 상태 점검 “긍정의 마음으로 완벽한 복귀”

스프링캠프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서 동료들과 함께 시즌 준비에 여념이 없다. 아직 100%로 피칭을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불펜에서 50구 이상을 던지면서 복귀를 위해 점점 단계를 올리고 있다. 광도규는 “캠프 참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구단에서 배려해 주셨다. 바로 시즌에 합류할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태인데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따뜻한 곳에서 공 던지고 있다”며 “(수술 부위의) 어색함이나 그런 것은 없다. 캠프 기간에는 피칭에서 퍼센트만 올리는 식으로 훈련을 할 예정이다. 강도를 올리고 있다. 빨리하려고 하면 코치님들이 많이 말려주신다. 시합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체계적으로 잘 잡아주시니까 잘되고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코칭스태프가 속도를 조절하고 있지만 치열한 경쟁 분위기 속 마음이 급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광도규는 “피칭할 때 옆에서 다른 선수들은 땀방울을 때리는 데 나는 130km에 만족해야 한다. 프로 선수 기준으로 광도규를 봤을 때는 최악의 상황이고 마음에 안들지만 올라가는 퍼센트도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다”며 “할 수 있는 단계는 다하고 있다. 과정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광도규는 2024 한국시리즈에서 화제의 ‘이의리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하는 등 남다른 멘털과 실력을 보여줬다. 화려한 무대에서 최고의 순간을 경험했던 만큼 다음 해 찾아온 부상이라는 어둠은 더 짙게 느껴졌었다. 광도규는 “LA 캠프에서부터 안 좋았던 것 같다. 전혀 몰랐다. 나도 못 느꼈는데 코치진도 알 수 없고, 하나 고치면 하나가 어긋나고, 고치면 다른 게 어긋났다. 시합에서 안 되니까 답답해하다가 팔까지 나갔다”며 “재활을 하면서 피폐해진 날도 하루이틀 있었는데 공 던지고 나서 괜찮아진 것 같다. 멘털도 잡혔다. 과정에 집중하는 게 많이 바뀐 것 같다. 짜증 내지 않고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다. 긴 여정일 테니까 긍정적으로 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긴 어둠을 지나 복귀를 위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광도규는 긍정의 마음으로 ‘완벽한 복귀’를 목표로 달릴 생각이다. 광도규는 “쓸 만한 놀이여야 한다”며 “돌아왔는데 팔 아파서 돌아왔으니깐 몇 번 기회 더 주자”가 아니라 돌아왔을 때부터 ‘쓸 만한 애였지’로 회상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쓸 만한 선수로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좌완 광도규(왼쪽)이 일본 아마미오시마 스프링캠프에서 이범호 감독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펜 피칭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쇼트트랙 혼성계주 준결승에서 미국 선수에 의해 넘어진 김길리가 최민정과 터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쇼트트랙,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다

혼성 2000m 계주 불운 끝 노메달…내일 새벽 여 500m·남 1000m

아쉬워도 어쩔 수 없다. 과거는 깨끗이 잊고 다음 경기에 집중해야 할 때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첫 메달 레이스인 혼성 2000m 계주에서 불운 끝에 메달 획득에 실패한 쇼트트랙 대표팀이 다시 메달 도전에 나선다. 윤재명 감독이 이끄는 쇼트트랙 대표팀은 13일 오전(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여자 500m와 남자 1000m에서 이번 대회 첫 메달 사냥에 나선다. 한국은 10일 여자 500m 예선에 출전한 최민정, 김길리(이상 성남시청), 이소연(스포츠토모), 남자 1,000m 예선에 나선 임종언(고양시청), 황대현(강원도청), 신동민(고려대) 모두 준준결승에 진출하면서 기대감을 높였다. 이중 남자 1000m는 한국 대표팀의 핵심 전략 종목으로, 중장거리 강점을 살려 금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가장 기대를 모으는 선수는 팀 에이스 임종언이다.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우승한 임종언은 경합 부족이 약점으로 꼽혔지만, 10일 남자 1,000m

예선과 혼성 2,000m 계주에서 노련한 경기 운영으로 주변의 우려를 불식했다. 임종언은 신인 선수가 흔히 범하기 쉬운 무리한 플레이를 하지 않았다. 1,000m 예선에서 루카 스페케나우세르(이탈리아)와 치열한 선두 다툼을 펼치다가 막판 1위를 내줬으나 무리하지 않고 안전한 레이스를 택해 2위로 준준결승에 안착했다. 이날 많은 선수가 무른 빙질 탓에 넘어지고 실수했으나 임종언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경기를 이어갔다. 평소 과격한 몸싸움을 펼치는 베테랑 황대현(강원도청)도 실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정적으로 레이스를 치렀고, 첫 올림픽 무대를 밟은 신동민(고려대)도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경기력을 보였다. 또한 ‘세계 최강’ 윌리엄 단지누(캐나다)가 이날 만큼은 2025-2026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투어에서 보였던 압도적인 경기력을 펼치지 못한 것도 한국 대표팀에 호재다. 단지누는 혼성 2,000m 계주에서 별다른 활약 없이 이탈리아에 금메달을 내줬다. 여자 500m에 출전하는 최민정, 김길리, 이소연

도 기대를 모은다. 단거리 종목인 여자 500m는 한국 대표팀의 취약 종목으로, 올림픽에서 한 번도 금메달을 따내지 못했다. 그러나 최민정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스타트 등 단거리 훈련에 집중했고, 월드컵투어 3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는 등 성과를 냈다. 최민정은 혼성 2,000m 계주 준준결승과 준결승, 파이널B에서 모두 1번 주자를 도맡아 대표팀을 이끌었다. 변수는 최민정과 함께 여자 대표팀을 이끄는 김길리의 부상 상태다. 김길리는 혼성 2,000m 준결승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미국 국가대표 커린 스토더드와 충돌하며 오른쪽팔을 다쳤다. 대표팀 관계자에 따르면, 큰 부상은 아니지만 훈련과 경기력에 지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아쉽게 메달을 놓친 대표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대표팀 김민정 코치는 “(여자대표팀) 막내인(김)길리가 많이 힘들어할 것”이라며 “주변의 언니, 오빠 선수들이 길리를 잘 다독이고 있다”고 전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11일 공식 훈련과 휴식으로 재정비한 뒤 13일 다시 출격한다. /연합뉴스



10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 출전한 차준환이 연기를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피겨 차준환 새 역사 쓸까

올림픽 남자 싱글 쇼트 6위…14일 한국 남자 사상 첫 메달 도전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간판 차준환(서울시청)이 2026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개인전 쇼트 프로그램에서 6위에 오르며 프리 스케이팅에 진출했다. 차준환은 11일(한국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남자 싱글 쇼트 프로그램에서 기술점수(TES) 50.08점, 예술점수(PCS) 42.64점을 받아 총점 92.72점을 기록했다. 1위는 108.16점을 받은 ‘퀵드킹’ 일리야 말리닌(미국)이 차지했고, 일본의 가키야마 유마(103.07점), 프랑스 아당 샤오잉파(102.55점)가 뒤를 이었다. 차준환과 3위 샤오잉파의 점수 차는 9.83점으로 작지 않지만, 역전 메달 획득 가능성이 사라진 건 아니다. 전체 15번째로 출전한 차준환은 ‘레인 인 유어 블랙 아이즈’(Rain in your black eyes)에 맞춰 첫 과제인 고난도 퀵드러플 살코를 완벽하게 해내며 기본 점수 9.70점과 수행점수(GOE) 3.19점을 얻었다. 이어 두 번째 점프 과제인 트리플 러츠-트리플 루프 콤비네이션 점프까지 흔들림 없이 수행했고, 플라이잉 카멜 스핀을 레벨4로 처리하며 전반부 연기를 마쳤다. 10% 가산점이 붙는 후반부 연기도 큰 흔들림

없이 이어갔다.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에서 쿼터 랜딩(점프 회전수가 90도 수준에서 모자라는 경우)이 나와 GOE 0.69점 감점을 받은 것은 아쉬웠다. 그러나 체인지 풋 싯 스핀(레벨4)과 스텝 시퀀스(레벨3), 체인지 풋 콤비네이션 스핀(레벨4)을 아름답게 연기하면서 이날 경기를 마쳤다. 2018 평창 대회에서 15위,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를 기록한 차준환은 이번 대회를 통해 한국 남자 피겨 사상 첫 올림픽 메달 획득에 도전한다. 그는 팀 이벤트(단체전) 남자 쇼트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점프 과제인 트리플 악셀을 싱글 악셀로 처리하면서 10명의 출전 선수 중 8위에 그쳤으나 이날 경기에선 부진을 만회했다. 함께 출전한 김현경(고려대)은 TES 37.92점, PCS 32.39점, 감점 1점, 합계 69.30점을 받아 26위에 머물면서 상위 24명에게 주어지는 프리 스케이팅 진출권을 얻지 못했다. 이날 1위에 오른 말리닌은 4회전 점프 2개와 트리플 악셀로 많은 점수를 끌어 담았고, 팀 이벤트에서 화제를 모았던 ‘백플립’을 다시 펼치며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메달 색이 결정되는 프리 스케이팅은 14일에 열린다. /연합뉴스